

《코끼리 놀이터》 독서지도안



너의 든든한 놀이터가 되어 줄게!
새로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어린이를 위한 따뜻한 응원가!

- 작가_ 서석영 글 · 주리 그림
- 출판사_ 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영차영차 정글짐을 오르내리고, 주르륵 미끄럼틀 타고, 빙글빙글 철봉을 돌며, 쓱쓱 툽툽 모래성을 쌓는 즐거운 놀이터. 언제쯤이면 우리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폴짝폴짝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까요? 마스크 없이 친구 얼굴을 다정하게 바라보면서 말이죠.

《코끼리 놀이터》는 산책 나온 천방지축 귀여운 병아리들을 위해 기꺼이 바위 놀이터가 되어준 코끼리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서석영 작가는 특유의 필력으로 놀이를 즐기는 병아리들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그를 위한 코끼리의 속 깊은 배려를 장면 장면 촘촘히 펼쳐냈습니다. 여기에 감정을 섬세히 포착해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그림이 장면마다 힘을 더합니다.

종종종 산책을 나온 노란 병아리들. 콧코 낱알과 풀을 쪼아 먹고 흙 목욕을 하다 보니 낮설기만 하던 주변 풍경도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바위를 발견한 병아리들은 거침없이 바위에 올라 쿵쿵 발을 구르고 쪼르르 미끄럼틀을 탑니다. 순간 바위가 흔들리자 병아리들은 깜짝 놀라지요. 사실 바위는 나무 아래에서 쉬던 커다란 코끼리였어요. 코끼리는 이대로 간지럼을 참고 계속해서 병아리들의 놀이터가 되어 줄 수 있을까요?

책을 읽다 보면, 병아리들을 위한 코끼리의 기다림과 배려가 너무나 따뜻해서 몸과 마음이 저절로 포근해집니다. 다른 이에게 도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배려의 마음'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또 누군가를 돕는 경험은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병아리와 같이 세상 모든 일이 서툰 불안한 어린이들에게 그런 기분 좋은 경험들이 따스한 응원이 되고, 그로 인해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1~2학년
- 누리 과정 연계 : 1~2학년군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공통
 - 1학년 1학기 국어 7. 생각을 나타내요
 - 1학년 2학기 국어 2. 소리와 모습을 흉내내요
 - 2학년 1학기 국어 3. 마음을 나누어요
 - 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떠올리며
 -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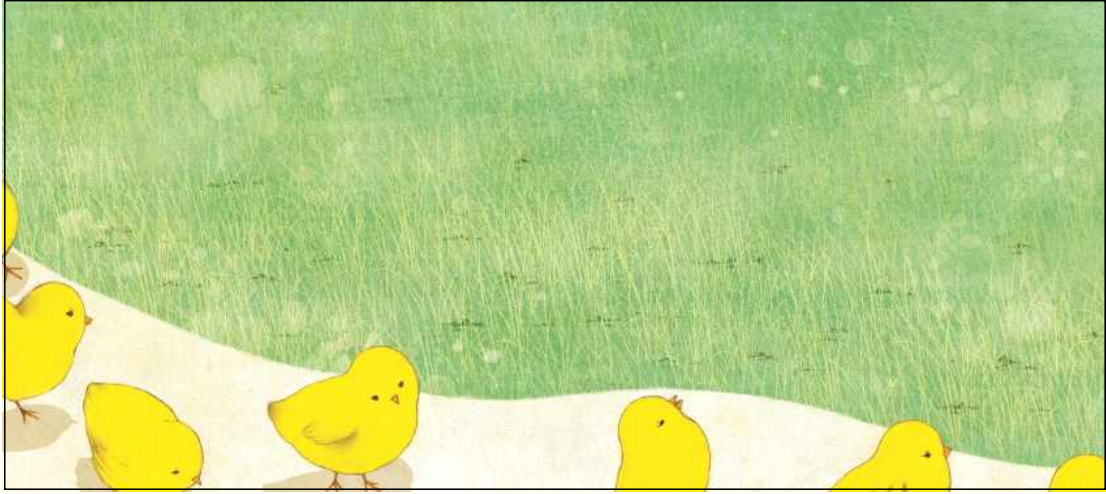
• 지도 요점 :

놀란 것도 잠시, 티 없이 맑은 병아리들은 바위 위에서 또 신나게 뛰어놀습니다. 짹 오줌을 싸기도 하고 똥을 싸기도 하면서요. 병아리들은 바위를 오르면서 모양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울퉁불퉁 코끼리 코 미끄럼틀은 얼마나 스릴 넘칠까요?

《코끼리 놀이터》를 읽고 내가 만약 병아리라면, 내가 만약 코끼리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친구들이랑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1) 노란 병아리들은 무엇을 하러 나왔나요?



- ① 산책
- ② 여행
- ③ 나들이
- ④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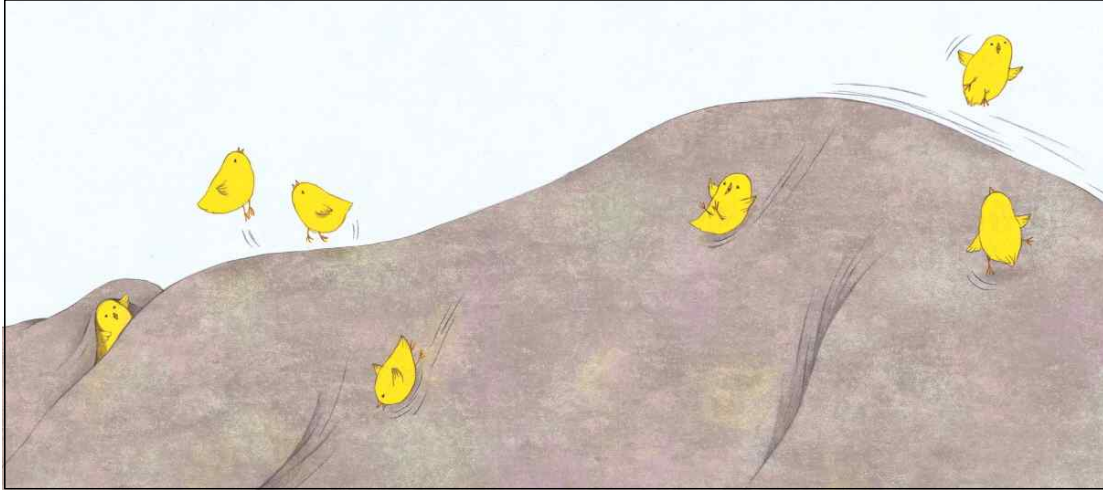
(2) 병아리들이 바위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 누구였나요?



- ① 고양이
- ② 하마
- ③ 코뿔소
- ④ 코끼리



(3) 다음 중 병아리들이 코끼리 놀이터에서 한 행동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폴짝폴짝 뛰기
- ② 배를 타고 쭈르르 미끄럼 타기
- ③ 짹짹 사워하기
- ④ 짹짹 오줌 싸기



(4) 코끼리가 꿈쩍 못 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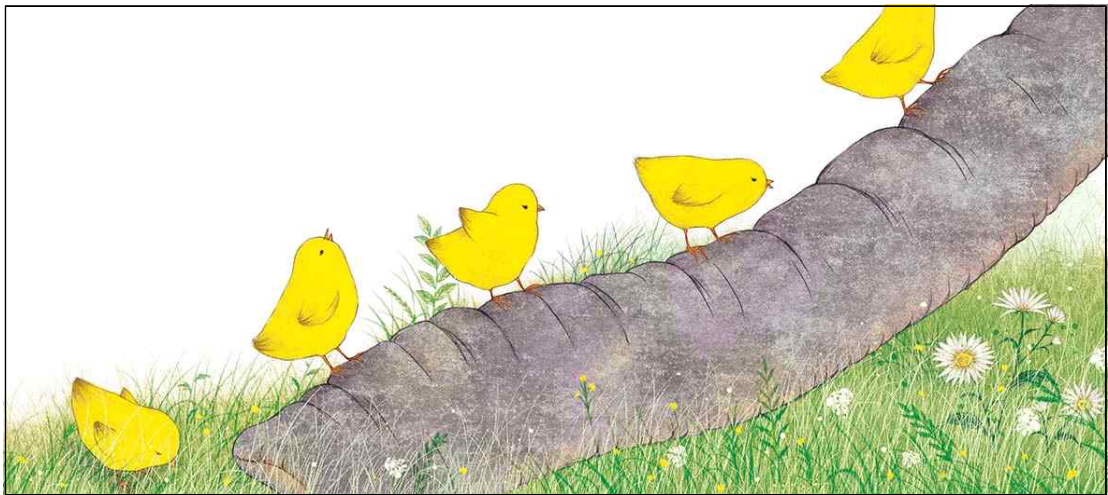


- ① 다리가 너무 저려서
- ② 바위가 일어나면 병아리들이 깜짝 놀라니까
- ③ 머리가 아파서
- ④ 잠이 들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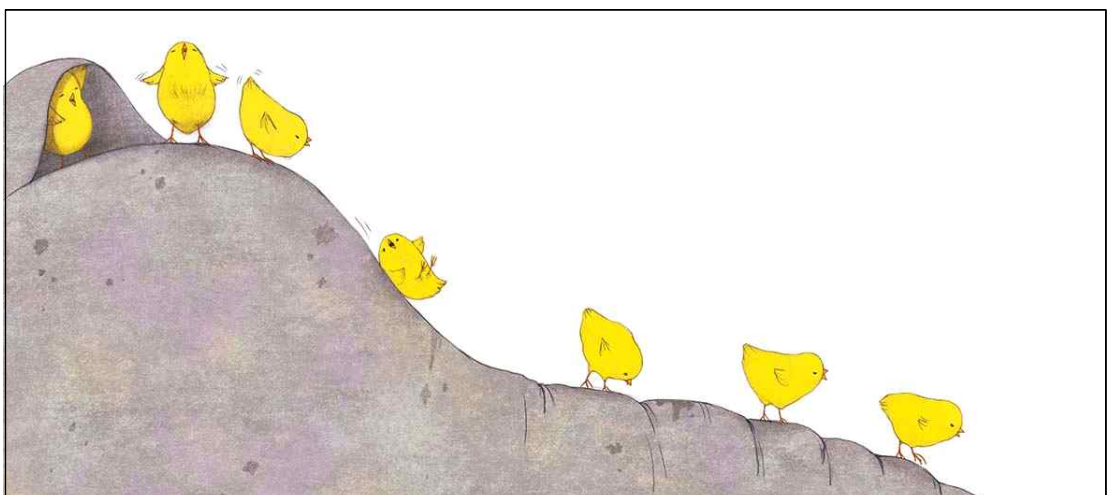


4. 확장활동

(1) 코끼리는 냇물에 풍덩 들어가 샤워를 하고 싶어도, 일어나고 싶어도 병아리들을 위해 꼭 참아요. 병아리들을 위한 코끼리의 진심 어린 노력이 몽글몽글 가슴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여러분도 코끼리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다리거나 배려하거나 노력했던 적이 있나요?



(2) 《코끼리 놀이터》는 독자를 다양한 상상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그림책입니다. 글은 독자가 자유롭게 병아리나 코끼리가 되어 볼 수 있도록 조용하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진짜 코끼리 놀이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쯤 가 보고 싶은, 한 번쯤 타 보고 싶은 놀이 공간을 마음껏 상상해 봐요!



(3) 병아리들이 기다랗게 줄을 서 돌아갈 때, 코끼리는 병아리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귀여운 병아리들이 놀라지 않고 무사히 돌아가 다시 또 오길 바라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 포근한 이야기를 보며 엄마 아빠의 모습이 떠오르진 않았나요? 누군가의 배려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① 산책 | (2) ④ 코끼리 | (3) ③ 싹싹 샤워하기 | (4) ② 바위가 일어나면 병아리들이 깜짝 놀라니까

확장활동

- (1) 하나 남은 과자가 먹고 싶었지만 동생을 위해 꼭 참았어요.
멋진 자동차가 가지고 싶었지만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등
- (2) 울퉁불퉁 낙타 놀이터가 생긴다면 스킬 넘칠 거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치타 놀이기구가 생기면 정말 신날 거 같아요. 등
- (3) 항상 이불을 덮어주는 엄마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꼈어요.
내가 다리를 다쳤을 때 옆에서 병원을 오가는 아빠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꼈어요. 등